

# 정신여학교의 초기(1887-1938년) 음악교육 및 합창활동에 관한 연구

오동은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1. 들어가며
2. 정신여학교의 설립과 발전
3. 정신여학교의 음악교육 및 합창
  - 1) 교과목으로서의 음악
  - 2) 합창교육
  - 3) 정신합창단의 활동
4. 나가며

## 개 요

본 논문은 개교 초기부터 마지막 교장인 루이스(Margo L. Lewis, 1885-1975)가 시무하던 1938년까지 시행되었던 정신여학교의 음악교육과 합창활동에 관한 연구이다. 미 북장로교의 첫 번째 여학교인 정신여학교는 1887년 의료선교사인 애니 엘러스(Annie J. Ellers, 1860-1938)에 의해 정동여학교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정신여학교는 근대 서양음악이 시작되었던 기독교 여학교의 대표학교로서 그곳에서 실행된 음악교육과 합창단의 활동은 근대 초기에 여성 합창단의 시작과 그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바른 신앙을 가진 여진 여성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성경과 산술, 언문 등을 가르쳤고, 1903년부터는 중학교 학제를 채택하였다. 개교 초기부터 찬송가 부르기로 시작된 음악 수업은 여선교사들에 의해 기초적인 가창과 오르간 교육으로 시행되었지만, 교회사역에 유익함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악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1회 졸업생이자 일본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김필레와 평양 숭실중학 출신의 성악가로 활동한 김형준이 음악을 가르치면서 보다 발전된 음악교육이 이루어진다.

매년 교내에서 열리는 졸업식, 창립기념일과 같은 행사들에서 합창 무대가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정신합창단이 형성되었고, 정신합창단은 1920-1930년대에 성행했던 교내·외 기독교 단체들의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명실공히 정신여학교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정신합창단은 선교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절단으로서 국내 여학교로는 최초로 1922년에 전국순회연주를 기획하여 교내 도서관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펼쳤다. 이들의 이 같은 합창활동은 여학생들이 공공연히 음악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양음악을 보급하고 음악적 재능을 나누는 통로가 되었다. 이것은 정신여학교가 추구해온 선교적 차원의 봉사와 섬김의 정신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정신합창단, 정신합창단 순회연주, 정신여학교 음악교육, 김필레, 김형준

## 1. 들어가며

미 북장로교는 1884년 9월 공사관부 의사로 입국한 알렌(Horace N. Allen, 1858-1932)을 시작으로,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859-1916)와 헤론(John W. Heron, 1858-1890)이 1885년에 4월과 6월에 입국하여 같은 해 7월에 조선 선교부 활동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sup>1)</sup> 이들은 교회와 의료, 그리고 교육이라는 세 가지의 외형적 틀을 구성하여 조선의 상황에 맞는 선교 활동을 진행해 나갔다. 조선의 여성들은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근대식 학교 교육을 통해 기독교인의 육성과 더 나은 조선인을 만들려는 서양 선교사들의 목적하에 이름 없는 한 존재에서 벗어나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신여성으로 키워졌다. 근대 서양음악이 전개된 곳은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와 학교들이었고, 이곳에서의 음악은 근대 학교 교육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W. J. 앤더슨(Wallace Jay Anderson, 1890-1960)<sup>2)</sup>은 “The Hymn sing Movement”<sup>3)</sup>에서 ‘한국교회의 회중 찬송이 질적으로 많이 향상되었고, 이는 성경반과 성경학교, 특히 교회 학교와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학교와 교회에서의 음악교육은 우리나라에 근대 서양음악이 뿌리내리고 발전하는데 큰 초석이 되었다.

1) 미 북장로교 엘린우드(Frank F. Ellinwood, 1826-1908)총무는 1895년 5월 의료선교사인 헤론을 조선으로 파견한 후, 알렌에게 선교부 조직을 권하는 서신을 보냈고, 이에 1885년 7월 13일에 북장로교 서울 선교지부의 시작을 알리는 첫 회의가 열렸다. 임시의장은 알렌, 임시서기는 헤론, 재무담당은 언더우드가 맡았다.

박형우 편역, 『호러스 N. 알렌 자료집 II. 1884~1885: 한국 최초의 개신교 (의료) 선교사』 (서울: 선인, 2020), 418.

2) 샌프란시스코신학교를 졸업한 앤더슨은 1917년 9월에 미 북장로교 선교사로 파송 받아 안동 선교부에 배치되었다. 그의 아내는 정신여학교에서 영어와 성경을 가르친 릴리안 비드(Lillian E. Beede Anderson, 1892-1934)이다. 그는 피어선성경학교 이사장과 원장을 역임 하였고, 1934년에는 조선 음악동호회를 결성하여 음악 보급 운동에 앞장섰다. 대한선교사 사전 편찬위원회, 『대한선교사사전』,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2), 780.

3) Wallace J. Anderson, “The Hymn sing Movement,” *The Korea Mission Field*, (Seoul: Fed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1938. 4), 85.

정신여학교는 미 북장로교가 세운 첫 번째 여학교이다. 본 논문은 정신여학교의 음악교육과 활동에 관한 연구로서, 정신합창단이 형성되기까지의 음악 교육과정과 합창활동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1910년대부터 기독교 학교들에서 성행했던 합창대는 정기적인 학예회나 기념행사, 강연회에서 빠짐없이 등장하였고 자체적인 음악회나 전국순회 공연들을 통해 근대적인 음악문화를 선도했다. 합창은 가창으로 시작된 학교의 음악교육이 집단적 음악활동으로 나타난 예시로서, 정신여학교 합창단은 근대 초기 여학교의 음악 활동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신여학교에 관한 연구는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학교사와 인물들, 그리고 여성운동에 관하여 집중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정신여학교만의 음악교육과 합창단 활동에 관해 조명한 논문은 전무한 상태이다.

음악에 관하여는 김사랑의 박사 논문인 “내한 여성선교사들의 음악 활동과 청각적 근대화: 1885-1940년까지 미북장로교를 중심으로”가 정신여학교의 음악 교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노동은의 “1910년대 기독교계 학교의 음악교육과 그 영향”과 김향숙의 “개화기 여학교의 교과 및 비교과 교양 교육”은 기독교 학교 중 하나로서 정신여학교의 음악 교과목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정신여학교에서 근무한 미 북장로교 소속 여교사들의 보고서와 선교편지를 수집, 번역한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sup>4)</sup>와 국내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의 이력과 공적인 활동을 정리한 『내한선교사사전』<sup>5)</sup>은 본 논문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는 선행 연구로 활용된다.

본 논문은 정신여학교의 개교 시기부터 폐교 전 마지막 서양 선교사 교장이 시무하였던 1938년까지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sup>6)</sup>하여, 북장로교 선교사들

4) 정애주 외,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 편지』 (정신여학교사료연구위원회 편집, 서울: 흥성사, 2014).

5) 내한선교사사전 편찬위원회, 『내한선교사사전』,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2).

6) 1938년 여름 루이스 교장이 사임한 이후 정신여학교는 1942년 3월에 경영권이 일제 측으로 넘겨져 2년 뒤 풍문학원에 인수되었고, 1945년에는 ‘경성 풍문고등여학교’로 인가(認可)됨으로써 폐교되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 1947년 3월 김필레를 교장으로 선임하여 7월에 정

의 연례보고서와 편지, 그리고 신문과 잡지 등의 1차 자료를 통해 음악교육의 과정과 정신합창단의 형성 및 활동들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근대 음악 문화에서 여성합창의 시작 및 여성 음악 활동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나라 근대 합창단의 발전과정과 그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 2. 정신 여학교의 설립과 발전

정신여학교를 설립한 미 북장로교 선교사 애니 엘러스(Annie J. Ellers, 1860-1938, 후에 Dalziel A. Bunker와 결혼)는 1886년 7월 3일에 의료선교사 자격으로 입국하였다. 엘러스는 왕비의 시의(侍醫<sup>7</sup>)와 제증원 부인과의 주치의를 맡게 되었고 언더우드 목사의 고아원<sup>8</sup>)에서 몇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언더우드가 데려온 ‘정네’(혹은 정희)를 자신의 사택(서대문구 정동 1번지)에서 돌보며 교육하게 되었다. 이 당시 주민들은 서양 선교사들을 ‘천주악

---

부로부터 재(再)인가를 받아 복교되었다. 1969년에는 중·고등학교로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1978년 잠실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895년까지 정동여학교, 1895-1903년까지 연동여학교, 1903-1909년까지 연동여자중학교 시기를 포함한 서양 선교사들이 교장으로 시무했던 1938년까지를 정신여학교의 초기로 보았다.

- 7) 엘러스는 진료가 없는 날에도 왕실의 부름을 받을 정도로 큰 신임을 얻었고, 그녀와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한 명성황후는 병커와 결혼할 때에도 금으로 된 팔찌와 집을 마련해주었다. “그녀(왕비)는 나를 대할 때마다 나의 몸을 어루만지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만 입실을 아니 하여도 보고 싶으시다고 여사를 보내실 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내가 40년간 한시도 내 몸에서 떠나지 않은 내 왼 팔뚝에 끼어있는 것은 즉 하사된 그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에도 그것만을 끼고 죽으려 합니다.” 『애니 엘러스, 1926년 4월 25일 자, 김혜경·이희천, 『애니 엘러스: 한국에 온 첫 여의료 선교사』 (서울: 홍성사, 2019) 53.
- 8) 언더우드는 한국을 위해 기독 청년을 길러 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1885년 5월 11일에 고아원을 시작하였다. “서울에 고아가 되어 곤궁한 처지에 있는 집 없는 아이들, 신생아들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받아들여 옷을 입혀주고, 음식을 먹여주며, 진리의 길 안에서 훈련받게 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구주를 사랑하도록 가르쳐 줄 수 있을 겁니다.” 『언더우드, 1886년 1월 20일 자, 김인수 옮김 / H. G. 언더우드, 『언더우드 목사의 선교편지』,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46.

(天主惡)쟁이'로 불신하여 딸들을 맡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러스는 부모가 없는 소녀들을 데려다 기르며 가르쳤다.<sup>9)</sup> 엘러스는 '하나님을 믿자, 바르게 살자, 이웃을 사랑하자'의 교육 정신 아래, 성경과 산술과목을 가르쳤으며, 1888년 3월 12일에 '정동여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선교부에 등록하였다. 하지만 엘러스가 조선에 들어온 이후부터 의료와 교육 사업에서 복장로교 선교사들과의 계속되는 불화를 겪으며 바쁜 병원 일과 학교 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자 그해 11월에 파크 대학(Park University)을 졸업하고 1888년 9월에 내한한 헤이든(Marry E. Hayden, 1857-1900, 후에 Daniel L. Gifford와 결혼)에게 여학교를 위임하였다. 그리고 약 2년간 재직한 헤이든 역시 결혼으로 1890년에 같은 파크 대학 출신인 도티(Susan A. Doty, 1861-1931, 후에 F. S. Miller와 결혼)에게 교장직을 인계하였다.

도티는 정동여학교를 14년간 운영하면서 학교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녀가 추구한 교육의 가치는 여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있었으며, 여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신앙을 가진 여성의 수를 증가시켜 교회의 성장에 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이 목표였다.<sup>10)</sup> 그녀는 학생들에게 매일 아침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하도록 하여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훈련을 시켰고, 선생님들께 매일 평절로 인사하게 하고, 외출 시에는 꼭 쓰개치마를 쓰게 했으며 말씨도 상류층의 말을 쓰도록 하여 조선 사람으로 자라도록 가르쳤다.<sup>11)</sup> 또

9) 1935년 5월 『新東亞』 5권 5호에 실린 一記者의 “歷史 깊은學校初創時話, 第二回: 貞信女學校篇”에 따르면, 첫 번째 소녀로 고아 이정희를 데려왔고, 1888년에 이계희, 서보배, 최대천, 임순동, 양순, 오비, 복동, 오목이, 갓나니가 들어와 총 10명이었으며, 이들은 7, 8세의 소녀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0) “교육의 가치는 읽기, 쓰기, 산수, 바느질, 유아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매일 그리고 매시간 교류함으로써 기독교인의 모델에 따라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교도 신앙을 따르는 여성들과 그녀가 얼마나 다른지 양쪽 모두를 알고 있는 우리만이 그 차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교회의 성장이 늦어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애주 외, “수잔 도티 외 12인, 1893년 7월 18일 자,”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304.

11) 선교사들은 소녀들이 이후에 가정을 이룰 것을 고려하여 외국식이 아닌 조선식의 요리와

한 스트롱(Ellen Strong, 1860-1903)과 아버클(Victorie C. Arbuckle, 1877-1921), 헤이든은 그녀를 도와 큰 힘이 되어주었다.<sup>12)</sup> 수업과목은 언문과 성경, 한자 등이었다. 영어는 특별히 가르치지 않았지만, 아직 조선어가 익숙치 않았던 선교사들은 영어로 수업할 수 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찬송가도 영어로 불렀다. 도티는 학교 건물이 너무 작다는 것과 정동에 이미 감리교 소속 여학교가 이미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 부지를 다른 장소로 옮겨줄 것을 선교부에 재차 의뢰하였고,<sup>13)</sup> 이에 선교부는 1984년에 연못골이라 불리던 종로구 연지동(현 종로구 대학로 3길 부근)으로 학교를 옮겨<sup>14)</sup> 교명을 연동(蓮洞)여학교로 개명하였다.<sup>15)</sup> 그리고 1903년에는 정식으로 중학교 학제를 채택하여 학교명을 연동여자중학교로 바꾸었다. 선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미국 여자 중학교의 수준으로 가르쳤다. 교과목은 성경, 한문, 가사, 침공, 수예, 음악, 체조, 습자, 이과, 지리, 역사, 어학(영어), 수학, 동물, 식물, 생리, 도화(미술), 작문 등이었다.<sup>16)</sup>

자수를 가르쳤다. 김광현, 『眞信百年史 上』, (정신백년사출판위원회 편집, 서울: 정신여중고등학교, 1989), 123-127., 이희천·김혜경, 『정신 130년사 상권』, (서울: 흥성사, 2017), 27.

- 12) 스트롱은 정신여학교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서울 남부에서 여성사역을 위해 애쓰다가 1901년 건강 악화로 선교사직을 사임하였고, 미국에서 간호사 훈련을 받았던 아버클은 내한 후 정신여학교에서 가르치다가 1893년 제증원으로 옮겨 의료사역에 참여하였다. 『정신 75년사』와 『眞信百年史』에는 헤이든 교장 밑에서, 홀튼, 스트롱, 아버클이 도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버클은 1892년 9월 20일에, 스트롱은 같은 해 11월에 조선에 도착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둘은 도티 교장의 재임 시절에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보인다. 내한선교사사전 편찬위원회, 『내한선교사사전』, 713, 747.
- 13) 북감리회 소속의 시설과 재정을 갖춘 이화학당에 비해 건물과 시설이 열악했던 정동여학교는 학생들을 모집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희천·김혜경, 『정신 130년사 상권』, 30-32.
- 14) 북장로교 서울 주재 선교사들도 연동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 10월 20일은 정동여학교가 연동으로 이전한 날로서, 정신여자중고등학교는 지금까지 이날을 개교기념일로 지키고 있다.
- 15) “우리學校寶物- 四十年前 紀念寫真 眞信女學校의 寶物,” 『신가정』 2/4 (1934), 97.
- 16) 연지동에 와서도 성경은 가장 중요한 학과목으로서 학생들에게 매일 성경 한 장을 암송하여 결국 신약성서 전권을 외우게 했다. 게일(Edith Gale, 1863-1937)은 서양사와 교회사,

1904년 도티 교장의 후임으로 바레트(Mary B. Barrett, 1864-1957)가 제4대 학교장을 맡았다. 바레트 역시 미주리의 파크 대학을 졸업하고, 1901년 9월에 내한하여 이미 연동여학교 때부터 생리학과 지리, 미술, 그리고 한주에 두 시간씩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다.<sup>17)</sup> 바레트에 이어 1905년에 제5대 교장으로 부임한 E. H. 밀러 부인(Mattie Henry, 1873-1969, Edward H. Miller의 부인)은 무디 성경학원(Moody Bible Institute)을 졸업하고 1901년에 내한하여, 한주에 4번은 연동여학교에서, 5일은 경신학교<sup>18)</sup>에서 한 시간씩 영어와 지리를 가르쳤다. 또한 그녀는 음악적 재능이 있어 1905년에는 연동여학교의 교가를 직접 작사, 작곡하고 찬송가도 작곡, 번역하였다.<sup>19)</sup> 『정신백년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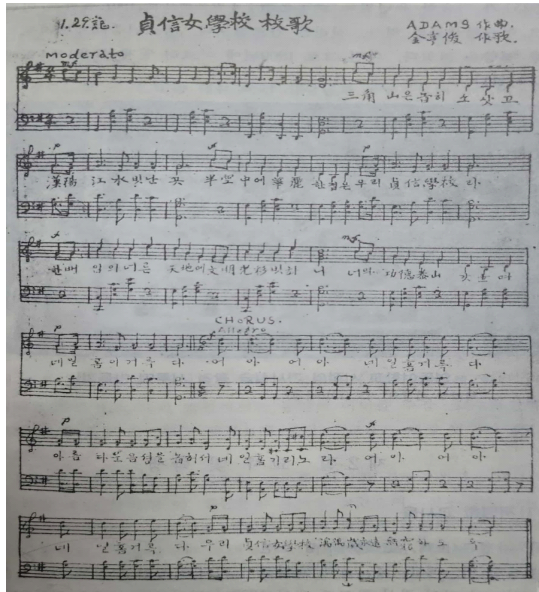
---

천문학 등을 가르쳤고, 물리와 화학은 에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이 제증원에  
서 의학생들과 함께 수업하였다. 한문은 이창직(李昌植), 국사는 김도희(金道熙), 서도는 김  
원근(金瑗根)이 지도했으며, 신마리아가 성경과 산술 등을 가르쳤다. 김원근 선생은 한학자  
로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통해 애국정신을 일깨워주었고 신마리아는 1896년부터  
26년간 교사와 교감으로 봉직하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인재  
를 키우고자 교육하였다. 이러한 교사들의 가르침은 정신여학교 학생들이 6.10만세와 3.1  
운동, 애국부인회 사건과 같은 구국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김광현, 『眞信  
百年史 上』, 156-158, 193.

- 17) 정애주 외, “존경하는 엘린우드 박사님, 1902년 1월 31일 자,”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402.
- 18) 경신학교의 전신은 1885년 언더우드가 세운 언더우드 학당이다. 이 기관은 언더우드와 고아들을 데려다 가르친 기숙학교로서, 1893년에 F. S. 밀러가 민노아학당으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하다가 1897년에 폐교되었다. 1901년 연동교회 담임목사였던 게일에 의해 연동중학교로 다시 세워졌으며, 1905년 새로운 것을 깨우친다는 뜻의 경신(儆新)학교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연동중학교와 경신학교는 세례식을 비롯해 졸업식과 교내 행사들을 연동교회에서 치렀으며, 교사들도 두 학교에서 모두 가르치거나 연동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많았다. 고춘섭, 『경신사, 1885-1991』, (경신사편찬위원회 편집, 서울: 경신중고등학교, 1991), 123., 정애주 외, “마고 리 루이스, 1917년 6월,”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546
- 19) 악보에 작곡자로 명시된 아담스는 이름(First name)이 쓰여 있지 않다. 하지만 『정신 130년사 하권』에는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던 제임스 아담스(James E. Adams, 1867-1929)가 새로 작곡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제임스 아담스는 당시 교장직을 맡고 있었던 밀러 부인의 무디 성경학원 동문인 캐롤라인 아담스(Caroline Mcneely Babcock Adams, 1875-1937)의 남편이자, 베어드 부인인 애니 아담스(Annie Laurie Adams Baird)의 동생이다. 누나인 애니 아담스는 평양 송의여학교 교가를 작곡했으며, 1915년에 정신여학교 교가를 비롯한

의하면, 이 교가는 1909년 교명을 연동에서 정신으로 바꾸어 불렀고, 이후 아담스가 약간 곡을 수정하였으며, 또 다시 음악교사 김형준이 악보에 옮겨 놓았다고 밝히고 있다.<sup>20)</sup>

[악보 1] 정신여학교 교가



밀러 부인이 안식년을 다녀온 1909-1910년 사이에 그린필드 부인(Maude E. Saxe, 1874-1910, Michael W. Greenfield의 부인)과 겐소 부인(Crrie M. Rittgers, 1882-1957, John F. Genso의 부인)이 차례로 교장직을 맡았고, 1910-1912년에 밀러 부인이 다시 교장으로 재취임하였다.

많은 학교의 교가가 수록되어 있는 『창가집』을 편찬하였다. 이희천·김혜경, 『정신 130년 사 하권』, 71., 노동은, “1910년대 기독교계 학교의 음악교육과 그 영향,” 『한국기독교역사 연구소』 20 (2004), 84., 민경찬, “[자료] 안애리(安愛理)가 편찬한 『창가집』,” 『남만음악사』 48 (2000) 참조.

20) 김광현, 『貞信百年史 上』, 190-191.

연동여학교의 첫 졸업식은 1907년에 이뤄졌다. 정식 졸업생은 김필례(金弼禮, 1891-1983)와 이원경(李元卿)으로, 첫 졸업식 이후에는 거의 매해 졸업생을 배출했다.<sup>21)</sup> 1909년 6월에는 사립 정신(貞信)여학교로 개명한 학교는 1912년에 지하가 있는 164평의 3층 건물인 세브란스관을 건축하여 당시 최신식의 기숙사와 교실을 보유하였다.<sup>22)</sup>

1912년 9월부터 1938년까지 역대 교장 중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선교사인 제9대 교장 루이스(Margo L. Lewis, 1885-1975)<sup>23)</sup>는 재임 동안 일제의 탄압, 학생들의 독립운동, 그리고 재정의 압박과 선교부 지원의 어려움 등, 학교의 불안정한 상황들을 끊임없이 겪어내야만 했다. 특히, 정신여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3. 1운동<sup>24)</sup>을 선두에서 이끌고, 애국부인회 사건<sup>25)</sup>과 6.10 만세운

21) 1회 졸업생은 이원경, 김필례가 정식 졸업하였고 후에 추가되었는데, 그 수가 13명 혹은 11명 혹은 8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1912년에는 3년에서 4년으로 학제가 늘어나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했다. 김광형, 『貞信百年史 上』, 189-190.

22) 지하의 식당은 음악실과 체육실 등으로 사용했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과자나 초콜릿 크림,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학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자조부서(self-help department)를 운영하였다. 이는 헤이든, 도티, 바레트가 다녔던 파크 대학을 모델로 개설된 것이었다. 파크 대학의 설립자 존 맥아피(John A. MacAfee)는 ‘학업과 노동’(Fides et Labor)이라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비가 없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노동을 통해 스스로 수업료를 낼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이러한 교육이념은 파크 대학 출신 혹은 캔자스 출신의 복장로교 선교사들인 베어드, 블레어와 맥쿤(George M. Maccune, 1873-1941), 제임스 아담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이 운영했던 학교(송실, 신성, 계성)에서 운영되었다. 안맹호, 『캔사스시 티지역 한인이야기』, (캔사스시티한인회&안일재단, 2019), 11, 26-28., 정애주 외, “마고 리 루이스, 브라운 박사 1912년 12월 수신,”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474.

23) 미네소타 대학(University of Minnesota)을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마운트 홀리요크 대학(Mount Holyoke College)에서 교원으로 일하다가 1910년 9월에 내한하였다. 선교사사전 편찬위원회 편, 『내한선교사사건』, 244.

24) “3.1 만세 시위에서 여성의 활약은 이화, 정신, 숙명, 진명 등의 여학교가 중심이 되었다. 이들이 담당했던 역할은 독립선언서와 기밀문서전달, 군자금 모집, 거리선전과 시위, 박인덕, 김활란, 황에스터는 이화고녀학생들을 지휘했고, 김마리아는 모교인 정신고녀학생들의 시위에 앞장섰다.” (현대어로 고침) “3.1 운동 “여성참여 활발했다” 당시 女性의 역할 李炫熙박사 강연내용,” 『동아일보』, 1982. 2. 17.

25)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독립운동 옥바라지를 목적으로 조직된 혈성부인회와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를 통합한 비밀결사대이다. 3.1 운동의 부인들의 증추가 된 애국부인회는 김마리

동, 광주학생운동에도 가담했던 학교였기 때문에 총독부의 통제와 압박은 계속되었다. 루이스는 김마리아(金瑪利亞, 1892-1944)를 비롯한 교사들과 졸업생, 그리고 재학생들이 옥고를 치르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들의 보호와 석방을 위해 힘썼으며,<sup>26)</sup> 정신여학교 졸업생들로 새롭게 구성된 여자기독교청년회(YWCA)<sup>27)</sup>운동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1910년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에 모든 사립학교는 1911년 8월 23일에 반포된 '제1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조선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했다.<sup>28)</sup> 여학교는 고등 보통고등학교 졸업자에게만 상급학교(대학예과, 전문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여자보통고등학교의 인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정신여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여자보통고등학교의 승격을 거부하고 각종학교로 남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학교는 입학생 수가 감소하고, 재학생들도 다른 보통고등학교로 옮겨가게 되는 난관

---

아와 여선생들 4명이 함께 정신여학교 내에 있던 당시 교감이었던 릴리안 딘(M. Lillian Dean)의 방에 모여 임시정부에 보낼 군자금을 모으고 항일운동을 추진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김영삼, 『김마리아』,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121-122.

26) 3.1운동의 2차 만세 일인 3월 5일에 가담한 김마리아를 포함해 정신여학교 70여 명의 학생들이 일제 관헌들에 의해 체포되어 학교의 학생 수가 3분의 1로 줄었다. “교무실은 이미 일경 10여 명에 의해 점거되어 흙 물은 발자국이 어지러웠고 교장 루이스 여사와 김마리아 선생은 일경에게 둘러싸인 채 참담한 표정으로서 있었다(..) 대한애국부인회가 집요한 일경들에게 꼬리를 잡힌 것이다(..) 루이스 교장과 딘 교감이 뒤따라 나오더니 우리들의 뺨을 비비며 눈물을 흘렸다.” (현대어로 고침) “그蠻行, 그眞相 내가 겪은 「日帝侵略」을 증언한다 <5> 마지막 수업,” 『동아일보』, 1982. 8. 5.

27) 김필레는 일본 유학시절 일본 YWCA의 가와이 총무가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에 대한 야만적인 태도에 반성해야 한다는 말에 감명을 받아 10년 후 김활란과 함께 YWCA를 창설하였다. 정신여학교와 이화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작은 종교 운동이었으나 문맹퇴치, 여자 야학강습, 구습타파와 같은 여성 사회 운동으로 발전했다. 김광현, 『貞信百年史』, 155-159.

28) 조선 총독부의 의도는 보통학교부터 전문학교까지의 학제와 교원, 교과서, 수업료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선인들에게 일본어를 습득시키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여 결국 제국 신민화에 잘 순응하는 실용적인 근로인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조선교육령,”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abId=01&levelId=hm\\_141\\_0010](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abId=01&levelId=hm_141_0010), 검색일: 2024. 4. 10.

을 겪어야 했다.<sup>29)</sup> 이후로도 계속되는 정신여학교의 경영의 어려움<sup>30)</sup>은 1927년에 김마리아와 김필레가 뉴욕 해외 선교부와 한인교포사회를 방문하여 정신여학교의 존속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국내에서도 정신여학교 후원회<sup>31)</sup>가 결성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결국, 학교는 1935년에 지정학교 인가를 받게 되었고,<sup>32)</sup> 이로 인해 1936년 3월 졸업생들은 평소보다 더 많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sup>33)</sup> 하지만 일제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기독교 학교들을 압박하였고, 정신여학교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와 한국 선교부는 폐교를 결정했으나, 학교 측과 동창회에서는 그동안 큰 업적과 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정신여학교를 폐교하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임을 호소

- 
- 29) “우리 학교가 지정된 학교가 아니므로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교사 자리를 얻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일반 학생이 아닌 특별한 학생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그들은 매우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정애주 외, “마고 리 루이스 1931년 5월 『연례보고서』,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686.
- 30) 일부 기독교계 학교들(정신, 경신, 평양 숭실, 승의 등)이 교육령을 거부하자, 총독부는 다시 1915년 3월에 개정사립학교 규칙을 공포하였고, 성경, 지리, 한국사 등을 교과목을 제외하고, 국민의례와 신도(神道)를 가르치라고 명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1915년 기독교 선교 연합회에서는 ‘개정교육령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하였지만, 총독부는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을 늦추지 않았다. 이에 감리교 측은 과외수업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총독부의 지시에 따르자는 온건한 입장을 취했으나 정신여학교를 비롯한 장로교 측은 10년간의 유예를 두고 투쟁하되 성경을 수업할 수 없을 시 폐교하자고 결의하였다. 김광현, 『眞信百年史 上』, 260-261.
- 31) 여운형, 윤치소, 유익겸, 백락준, 조만식, 함태영 등 국내의 사회, 교회, 교육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후원하였다. 1928년에 김필레가 평양에서 열린 장로교 선교에 총회에서 탄원서를 발표하였고, 정신여학교는 원한경(Horace H. Underwood, 1890-1951)목사가 설립자 대표를 맡아 북장로선교회의 지정학교로서 운영할 것을 결정하였다. 김광현, 『眞信百年史 上』, 513., “學界의 또 기쁜消息 眞信女校後援發起,” 『동아일보』, 1933. 6. 27.
- 32) “36년 졸업한 정신여고 28회 동창 백혜인씨는(.) 『일본 총독부가 정식 고등여학교로 등록을 안 해주려 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전교생 1백여 명이 전 과목 시험에 합격해 비로소 고등여학교로 인가받을 수 있었죠.』” “할머니들 女高 동창회,” 『조선일보』, 1992. 9. 5.
- 33) 정애주 외, “마고 리 루이스, 1936년 7월 29일 『연례보고서』,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732.

하며, 한국인에게 인계해달라고 선교부에 요청하였다.<sup>34)</sup> 그리고 학교를 한국인 측에 인계하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학교를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결국 루이스 교장은 1938년에 자진 사임을 결정하게 된다.<sup>35)</sup>

1928년 10월 18일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에 보고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정신여학교는 23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실제로 그중에는 가정주부가 75명으로 가장 많았고, 55명이 학교 관련 일, 24명은 교회 일과 4명은 복음 전도사역에 종사하였고, 31명은 상급학교에 진학, 24명은 해외 유학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sup>36)</sup> 루이스의 교육 목표는 학생들이 바른 신앙과 심성을 가지고 졸업 후에 훈련된 전도사나, 선생님 혹은 주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sup>37)</sup> 이에 그녀는 학생들에게 가정의 실제 삶에서 필요한 지식과 실기를 가르쳤고, 무엇보다 서양의 교육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에게 실용적으로 맞는 교육을 하고자 했다.<sup>38)</sup>

34) “이렇게 여성교육기관이 결여되어있는 이때 이미 오랜 역사 밑에 수백의 재원을 길러낸 경성부 정신여학교는 지금 폐교 운명에 직면 되어있다.(.) 우리의 여성 교육기관 “정신”은 지금 구원의 손을 기다리고 있다. “승의”의 오십년을 불사른 것도 천추의 한이려니와 “정신”마저 어찌 잃을 것이라.” (현대어로 고침)

“眞信校를 救하자,” 『동아일보』, 1938. 10. 26.

35) 이희천, 김혜경, 『정신 130년사』, 254.

36) 가정주부가 되었어도 교회사역과 교육에 관련한 일을 하는 졸업생이 다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서울 정신여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현황, 1928년 10월 18일 자,” 정애주 외 21명,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 편지』, 644.

37) “4년 동안 체계적인 성경공부 과정을 통해 훈련된 전도사를 내보내거나, 자격을 갖춘 초등학교 선생님을, 또는 음식이나 바느질을 잘하도록 훈련된 주부들을 배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고 리 루이스, 1912년 12월 17일 자,” 정애주 외 21명,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482.

38) “현 교장 손 부인의 교육방침으로는 정숙하고 도리를 다하는 착하고 어린 여성을 양성하기 위하여 결코 깊고 넓은 학문적인 이론보다는 낮고 천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선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용하기 좋은 재봉, 세탁, ?의, 쌀 재배, 요리 등으로 이용하기 쉽고 편한 것을 위주로 기숙사 아래 지하층을 이용하여 위의 필요한 실과를 교수케 하니 어떤 사람은 서양인에게 동양인 교육을 맡기면 동양 가정에 서로 반대된다 하나 결코 이는 결보기에 그러한 것이요.” (현대어로 고침) “眞信女學校 蕪洞,” 『매일신보』, 1914. 2. 21.

[표 1] 1887-1938년까지의 정신여학교 역대 교장

교장	이름	교장 재직시기	남편 선교사	출신학교
제1대	애니 엘리스(Annie J. Ellers)	1887-1888	D. A. Bunker	보스턴 의과대학
제2대	메리 헤이든(Mary Hayden)	1888-1890	D. L. Gifford	파크 대학
제3대	수잔 도티(Susan A. Doty)	1890-1904	F. S. Miller	파크 대학
제4대	메리 바레트(Mary B. Barrett)	1904-1905?	미혼	파크 대학
제5대	매티 헨리 밀러 (Mattie Henry Miller)	1905-1909	E. H. Miller	헤드의 사범학교, 무디성경학교
제6대	안나 밀스 그린필드 (Anna Mills Greenfield)	1909-1909	M. W. Greenfield	-
제7대	마벨 리트거스 겐소 (Mabel Rittgers Genso)	1910-1910	J. F. Genso	디모인 하이랜드 사범대학, 무디성경학교
제8대	매티 헨리 밀러 (Mattie Henry Miller) - 재취임	1910-1912	E. H. Miller	헤드의 사범학교, 무디성경학교
제9대	마고 리 루이스 (Margo L. Lewis)	1912-1938	미혼	미네소타 대학

[표 2] 학교명 변경에 따른 교과과정

교명	시기	교과과정
정동여학교	1887-1894	성경, 산술, 역사(구술) *수업연한과 학제 정해지지 않음 (소학교 과정)
연동여학교	1895-1902	성경(복음요사, 福音要史), 체조, 도화(圖畫), 과학, 습자(習字), 역사, 지리, 산술, 음악(찬송가), 국어, 한문, 천문, 가사(家事), 침공과 수예, 생리학,
연동여자중학교	1903-1909	성경, 한문, 체조, 도화, 과학, 습자, 이과, 수학, 동물, 식물, 역사, 지리, 음악(찬송가), 자수, 어학, 한문, 천문, 가사, 침공, 수예, 생리학, 작문 *중학교 수준의 교육, 수업연한 4년 (1914-1916년 1년 과정 사범과 운영)
정신여학교	1909-1945	수신(修身), 일본어, 조선어, 한문, 역사, 지리, 산술, 이과, 가사, 습자, 도화, 재봉, 수예, 창가, 체육

### 3. 정신 여학교의 음악교육 및 합창

#### 1) 교과목으로서의 음악

정동 여학당은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장 중시하여 가르쳤고, 찬송도 기독교적 의식으로서 수시로 부르게 했다. 연지동으로 이전한 후에는 매주 일요일 연동교회에 갈 때 학교 소사가 교내에 있는 작은 풍금을 지고 가서 예배시간에 사용했다.<sup>39)</sup> 1903년 연동여자중학교로서 정식 중학 과정을 채택하게 되면서 음악이 정식 교과목이 되었으며, 이때에도 찬송가를 가르쳤다. 어떠한 교재로 가르쳤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지만, 초기 찬송가의 출판 연혁을 보았을 때, 다음의 찬송가집을 사용했을 것이라 추측이 가능하다. 먼저, 1895년에 북 장로교에서 발간한 『찬성시』는 1판(1895)에 제2대 교장 헤이든이, 제2판(1898)에 제5대 교장 E. H. 밀러 부인이 번역작업에 참여하였고,<sup>40)</sup> 같은 북장로교 학교인 평양 송실학당의 선교사들도 번역과 편집에 참여했기 때문에 송실학당과 정신여학교의 음악교과서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sup>41)</sup> 그리고 1908년 경부터는 장로교, 감리교의 연합에 의해 출판된 『찬송가』<sup>42)</sup>는 북장로교와 감리교단의 학교들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 찬송가집은 도티와 결혼한 F. S. 밀러 선교사, 송실학당을 설립한 베어드의 아내 애니

39) 김광현, 『眞信百年史 上』, 144.

40) 언더우드가 발간한 『찬양가』(1884)는 편집과정을 문제시하여 북장로교와 감리교에서 사용을 거부하였고, 북장로회선교부는 새로운 찬송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895년에 『찬성시』를 출간하게 되었다. 당시 악보를 읽을 수 있는 교인이 드물었기에 제1판부터 제8판까지 가사판으로 출간되었다.

41) 베어드 부인의 창작과 번역한 곡이 48곡으로 가장 많고, 송실중학 출신의 김인식도 가사작업에 참여하였다. 민경찬, 『송실과 한국의 근대음악』, 90-92.

42) 1908년 이전까지 장로교는 『찬성시』, 감리교는 『찬미가』를 사용하였는데, 이들이 연합하여 함께 찬송가를 부를 때 즐거움이 없어진다고 하여 찬송가위원회에서는 1908년 장, 감의 공용 찬송가집을 편찬하였다.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328-330.

베어드 부인(Annie L. Adams Baird, 1864-1916), 그리고 엘리스와 결혼한 병커(Dalziel A. Bunker, 1853-1932)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음악 지도에 관한 기록은 도티 교장 때부터 발견된다. 하지만 학교는 음악 분야에 대해 후원하는 것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님을 밝히고 있어, 음악교육이 다른 과목에 비해 그 비중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기악수업이 정규 학업 시간표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한 여학생이 한동안 렛슨을 받아오고 있으며, 지금은 연못골교회(연동교회)와 학교에서 호평을 받으며 찬송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조선 교회의 사역에서 이처럼 확실한 유용성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분야의 일을 후원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1895-96년의 보고서로 추정, 수잔 도티<sup>43)</sup>

우리 학생들은 졸업한 후 직접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지 않더라도 교사가 되거나 조사의 아내가 되어 기독교인으로서 아름다운 성품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세월이 지나면 우리 졸업생들은 대부분 전도 부인이 될 것입니다.

1904년 11월 『The Korea Field』, 메리 B. 바레트<sup>44)</sup>

위의 글에 나타나듯이, 도티와 바레트 교장이 가진 여학교의 목표는 교육을 통한 복음 전도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896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여학교 시범 운영 계획서에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성경과 교리, 한글, 산술, 재봉과 가사일 등이 매일 교습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음악 수업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sup>45)</sup>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연동여학교 시기의 음악 수업은 기독교적 의식의 하나로서 찬송가 교육을 했을 뿐, 음악

43) 정애주 외,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130.

44) 『The Korea Field』 (1904).

45) 정애주 외, “수잔 도티, 1896년 1월 18일 자,”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374-380.

적 지식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음악 수업에 관한 기록은 1899년과 1900년의 보고서에서 나타나는데, 왓볼드(Daniel M. Wambold, 1866-1948)가 한주에 한 시간씩 노래수업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왓볼드는 1896년에 내한하여 연동여학교에서 도티 교장을 도와 음악뿐만 아니라 체조, 미술, 영어, 성경, 지리, 생리학 등 여러 과목을 가르쳤다. 미국에서 간호공부를 하였던 그녀는 음악전공자는 아니었지만, 음악에 재능이 있어 연동여학교의 초기 음악교육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sup>46)</sup> 그녀는 스트롱이 유품으로 남긴 오르간으로 학생들에게 교습을 강화하여서 당시 학생의 3분의 1이 오르간을 연주할 수 있게 하였다.<sup>47)</sup> 그리고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의 모임에서 소프라노로서 무대에 서면서 자신의 음악적 기량을 나타내기도 하고,<sup>48)</sup> 승동교회(당시 흥문수골교회)에서 찬송가를 지도하여 교인들에게 찬송의 의미를 일깨워주기도 하였다. 왓볼드에 이어 1901년에 9월에 내한한 바레트는 연동여학교에서 지리와 미술, 생리학을 가르치고 한주에 두 시간씩 음악 수업을 진행하였다.<sup>49)</sup>

음악으로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선교사는 바로 레라 에비슨(Lera Chalmers Avison, 1889-1968)이다. 그녀는 캐나다 선교사이자 의사인 올리버 에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부부의 장녀로, 그녀가 세 살 때 부모님과 함께 내한하여 어린 시절을 조선에서 보냈다. 그녀는 진학을 위해 미

46) “성탄 휴가 때 왓볼드 양이 1주에 한 시간씩 20주 동안 학생들에게 노래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림 기초수업도 진행해 왔습니다.” 정애주 외, “수잔 도티, 1899년과 1900년의 『보고서』,”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394.

47) Miss K. C. Wambold, “Seoul School Work,” *The Korea Mission Field* (1906), 196.

48) 왓볼드는 1896년 10월 27일 언더우드 부부가 주최한 웰즈(James H. Wells, 1866-1938) 부부의 환영 만찬식과 1897년 1월 15일 외국인 여성 테니스 대회에서 독창을 하였고, 1897년 2월 12일 서울 외국인 클럽에서 독일가곡을 불렀다. 내한선교사사전 편찬위원회 편, 『내한선교사사전』, 873.

49) “(바레트 양)은 지금 여학교에서 한주에 두 시간씩 음악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게 (도티) 큰 도움이 되어 그녀도 만족감을 느끼고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정애주 외, “수잔 도티, 1902년 1월 31일 자,”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402.

국으로 건너가 오하이오 우스터 대학(The College of Wooster)을 졸업한 후, 1911년 9월 선교사로 다시 입국하여 1912년부터 1914년 6월까지 정신여학교에서 기악과 가창 수업을 담당하였다. 당시의 교장 루이스는 1912년 12월에 수신된 보고서에서 “에비슨에게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의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연동교회(계일 박사의 교회)의 저녁 예배와 기독교 여학생 연합회 예배에서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다”<sup>50)</sup>고 보고한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의 기록에는 “그녀에게 배운 학생들이 더 늘어났으며, 여러 학생들이 여러 교회에서 오르간을 반주하고 있다”<sup>51)</sup>고 하여, 그녀가 학생들의 음악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많은 공헌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에비슨이 미국으로 귀국한 후에는 3년간 중국에서 교사로 일했던 졸업생(박양무 혹은 유각경으로 추정<sup>52)</sup>)이 모교로 돌아와 기악 지도를 하였고,<sup>53)</sup> 1916년에는 딘(M. Lillian Dean, 한국명 천미례, 후에 F. S. 밀러와 결혼)이 내한하여 1920년까지 기악(오르간)과 미술을 지도하였다. 딘은 이후 청주에서 사역을 하면서 무대에서 독창을 했던 기록이 있는데, 이를 보아 정신 여학교에서도 가창 교육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54)</sup>

1921년 루이스가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전교생 107명 중에 60명의 학생

50) 정애주 외, “마고 리 루이스, 1915년 『연례보고서』,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476.

51) “에비슨과 헤어질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들어온 날부터 많은 수업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악 시간과 기악 시간도 모두 맡아 주었습니다.” 정애주 외, “마고 리 루이스, 1915년 『연례보고서』,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494.

52) 유각경은 4회 졸업생으로 1911년에 중국 북경(북경협회 여서원)으로 3년간 유학하고 돌아와 모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녀는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김필레, 김활란과 함께 YWCA의 창설을 주도하고 근우회를 창설하는 등 여성운동에 앞장섰다. 김광현, 『眞信百年史上』, 432.

53) 정애주 외 21명,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506.

54) “청주여자기독청년회에서 팔월이십구일 하오 구시 동교회 예배당 내 음악연주회를 개최하였는데 천미례 여사의 독창과(..)” (현대어로 고침) “女子音樂演奏會,” 『동아일보』, 1922. 9. 8.

들이 다섯 명의 선생님에게 오르간 수업을 받고 있으며, 교내에 구비되어 있는 오르간이 많이 부족하여 연습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55)</sup> 또한 1922년의 보고서에 의하면 학생들이 오르간 수업을 받기를 원하지만, 가르칠 만한 교사가 없어서 아직 충분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젊은 한국인 여교사 몇 명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56)</sup> 1923년 4월에 교무주임으로서 다시 모교로 돌아온 김필레는 학교에 피아노가 없음을 보고, 언더우드 2세(Horace H. Underwood, 한국명 원한경, 1890-1951)에게 800원의 돈을 빌려 '텔러 상회'에서 피아노를 구매하였다. 그리고 이 돈을 갚기 위해 동창회에서는 바자회를 열었고,<sup>57)</sup> 이후로도 김필레는 피아노 한 대와 오르간 한 대를 더 들여와 음악 수업을 향상시키려 노력하였다.<sup>58)</sup> 피아노가 들어오자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당시 음악선생이었던 김형준(金亨俊, 1884- ?)이었다. 그는 음악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개인 교습을 해주었는데, 특히 당시에 노래하는 학생 음악가로 유명했던 최영순이 대표적이었다.<sup>59)</sup>

김필레는 정신여학교에서 처음으로 유학으로 음악을 전공한 졸업생이자 교사였다. 그녀는 연동여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고, 1908년 일본 동경여자학원으로 국비 유학을 떠나 영어과를 마치고 일어과에 수학하다가 피아노 실력을

55) 정애주 외, "마고 리 루이스, 1921년 5월 『연례보고서』,"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586.

56) 정애주 외, "마고 리 루이스, 1922년 8월 『연례보고서』,"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600.

57) 정애주 외, "마고 리 루이스, 1924년 6월 『연례보고서』,"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608.

58) 김필레 선생이 두 번째로 산 피아노와 오르간의 비용은 본인이 감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업이 끝난 후 실시하는 피아노 개인 교습으로 악기의 월부금을 갚아나갔다. 그녀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 잔금은 학교가 부담하였다. 이기서, 『교육의 길 신앙의 길, 김필레 그 사람과 실천』 (서울: 태평문화사, 1988), 163-164.

59) 1926년 1월 21일과 26일자 『동아일보』에는 최영순 외에도 정신애와 최순옥이 장래의 피아노와 성악의 재원으로 소개된 바 있다. 최영순은 15회 졸업생으로, 1933년 12월 9일에 있었던 경신학교 쿤스(Edwin Wade Koons, 1880-1947)교장의 근속 기념식에서 독창을 불렀다. 고춘섭, 『경신사, 1885-1991』, 435.

인정받아<sup>60)</sup> 1914년 감리교 계통의 종교학교인 영화(英和)음악전문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였다. 그녀는 일본유학 시절부터 후배들의 피아노 개인레슨과 교회 반주, 그리고 합창반을 만들어 지도했을 만큼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였다. 귀국 후 1916년부터 1918년까지 정신여학교에서 근무한 그녀는 광주에서 활동하다가, 1923년 다시 학교로 돌아와 1924년 12월에 미국 조지아주 아그네스 스콧 대학(Agnes Scott College)으로 유학을 떠날 때까지 교무주임과 음악 교사로 근무하였다.<sup>61)</sup> 김필레가 근무하면서 음악만을 전담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아노를 전공했던 교사인 만큼 많은 학생들에게 음악적 역량을 키워주었던 것으로 보인다.<sup>62)</sup> 특히, 그녀는 그녀의 여학생들 몇 명을 학생 교사로서 훈련하여 후배들을 가르치도록 하였고, 상급학생들에게는 연동교회의 아침 주일학교와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지도하도록 하였다.<sup>63)</sup>

이 학교에 있었던 2년 동안 그녀(김필레)는 음악과를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졸업생들에게 피아노를 증정하도록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음악을 가르쳐 몇 명의 여학생들을 훈련 시켰으며 우리

- 
- 60) 연동여학교는 공부를 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들에게 특별상으로 풍금을 가르쳐 주었는데, 김필레는 두 번이나 월반하여 풍금을 배울 수 있었다. 이기서, 『교육의 길 신앙의 길, 김필레 그 사랑과 실천』, 50, 85.
- 61) 김필레는 1916년 동경여자학원을 졸업한 후 교비 장학생으로서 의무적으로 그 학교에서 가르쳐야 했지만, 루이스 교장이 학교장에게 찾아가 그녀가 정신여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김필레는 모교로 돌아와 1916년부터 1918년까지 역사(세계사, 교회사)와 수신을 가르쳤고, 역사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1918년 이후에는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치치하얼과 광주에서 있으면서 시위운동으로 구금되기도 했다. 그녀는 광주 여자 아학과 수피아여학교에서 교사와 광주 YWCA의 초대 총무로 활동하다가 루이스 교장의 부름을 받고 1923년 정신여학교의 교무주임을 맡았다. 이기서, 『교육의 길 신앙의 길, 김필레 그 사랑과 실천』, 89, 117-161.
- 62) “첫길에 앞장선 이들 (12) 열성있고 활발해야 음악가와 문사를 겸한 ◇정신녀학교 학감 김필레녀사,” 『조선일보』, 1924. 12. 4일.
- 63) 정애주 외, “양쪽 주일학교에 있는 거의 모든 교사들은 우리 학생이거나 졸업생이며, 오르간을 연주하는 젊은 여성도 본교 졸업생입니다.” “마고 리 루이스, 1917년 6월,”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546.

는 그들을 학교 교사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로 한 대의 오르간과 또 하나의 피아노를 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음악 장비에 대해 부끄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기들은 여기에 있지만 지금 임시로 그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쿤스 부인이 내년에는 휴가를 갈 것으로 생각되므로, 특별히 학생 교사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로서 김필레 선생님을 이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sup>64)</sup>

숭실대학 출신의 박경호(朴慶浩, 1899-1979) 또한 음악 교원으로 일한 기록이 남아있다.<sup>65)</sup> 그 기간은 정확하지 않으나, 그가 중국 난징의 금릉(金陵) 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후, 부츠 부인(Florence S. Boots, 1894-1983)과 중앙악우회를 조직하기 위해 상경한 1926년 이후부터 1928년 신시내티 대학(University of Cincinnati)에 피아노 전공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일 것으로 추정한다.

1924년 4월~1925년 5월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김필레 선생이 떠난 자리에 쿤스 부인(Lucy Donaldson Koons, 1885-1986)<sup>66)</sup>이 잠시 그녀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이후에 앤더슨 부인(Lillian Beede Anderson, 1892-1934)이 아홉 명의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으며,<sup>67)</sup> 코엔 부인(Mary Buchanan Coen, 1895-1989)도 오르간을 교습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1927년 5월 25일의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학교는 음악의 중요성을 특

64) 정애주 외, “마고 리 루이스, 1924년 4월-1925년 5월. 『연례보고서』,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620.

65) “최근에 신시내티에서 돌아오신 박경호 전 음악선생님이 오셔서 연주를 하면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정애주 외, “『서울 여학교 보고서』, 1933년 5월 12일자,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700.

66) 쿤스 부인은 1913년 입국하여 정신여학교에서 영어와 가사 등을 가르쳤다. 그의 남편 쿤스 목사는 재령에서 명신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13년부터 1939년까지 경신학교 교장을 지냈다. 내한선교사사건 편찬위원회 편, 『내한선교사사건』, 1088.

67) “앤더슨 선생님은 상급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며, 아홉 명의 여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정말로 그녀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애주 외, “마고 리 루이스, 1924년 4월-1925년 5월 『연례보고서』,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622.

히 강조하려 했지만, 여전히 악기 연주 수업을 듣는 학생 수는 매우 적다”고 하면서 학생들의 호응도가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몇 학생에게는 수업료가 다소 무리가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시간을 들여 배우고자 하는 뜻이 없어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sup>68)</sup> 또한 1935년부터 교원으로 활동한 로즈 부인(Edith Brown Rhodes, 1875-1965)은 루이스 교장을 도와 교과목을 가르친 것으로 확인되나 어떻게 음악을 가르쳤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하지만 학교에서 열린 특별기도회나 매일의 예배에서 그녀가 직접 피아노 연주를 담당하였다는 것과<sup>69)</sup> 연희전문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으며 교회에서 성가대와 오르간을 맡았던 것으로 보아<sup>70)</sup> 정신여학교에서도 음악교육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필레 선생은 정신여학교에서 첫 번째로 음악을 전공한 한국인 교사였지만, 그녀가 해방 이후 1947년에 교장으로 오기 전까지, 교사로서 근무한 기간은 1916-1918년과 1923-1924년으로 그리 길지 않다. 그녀가 1923년 교무주임으로 다시 학교로 오기 전에 이미 김형준은 음악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가창수업과 합창단을 지도하고 있었다. 김형준은 1920-1930년대에 정신여학교 합창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교사이다. 1920년대부터 딘, 김필레, 앤더슨, 코헨이 짧게나마 오르간을 지도했었기 때문에, 김형준은 음악 교사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의 가창수업과 합창수업을 전담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평양 승실증학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양 선교사에게 노래와 나팔을 배웠고, 김인식의 제자이기도 했다.<sup>71)</sup> 그는 음악에 대한 열정

68) 오르간의 교습비는 추가적으로 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1933년 5월 12일의 보고서에서도 “안동 교회 유치원에서 온 백 선생님이 가을부터 기악을 맡았고, 몇몇 여학생들이 음악 지도비를 더이상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과 마찬가지로 가르치겠다”고 보고한다. 정애주 외, 『서울 여학교 보고서, 1933년 5월 12일자,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634, 700.

69) 정애주 외, 『정신여학교 연례 보고서』, 1935년 6월, 1936년 7월 29일, 1937년 5월, 1938년 5월,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722, 730, 736, 738, 754.

70) 내한선교사사전 편찬위원회편, 『내한선교사사전』, 232.

으로 서양 선교사에게 개인레슨을 받았고, 경성으로 옮긴 후에는 협성신학, 협성여성신학, 피어선성경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독학으로 실력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1920년대와 30년대에는 정신여학교를 비롯하여 경신학교, 중앙고등보통학교, 경기공업고등학교 등에서 음악 교사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된다.<sup>72)</sup> 하지만 『정신75년사』에는 김형준이 ‘1920-30년대 음악 교사로 재직’했다는 기록밖에 없어, 정확히 언제부터 정신여학교에서 수업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고향인 황해도 신천으로부터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 1913년에 경성으로 주거지를 옮겼고,<sup>73)</sup> 1917년 11월부터 경신학교에서 촉탁 교원(계약직)으로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기 때문에<sup>74)</sup> 아마도 이 전후로 정신여학교의 근무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신75년사』에 ‘왜정 말기 1938년 이후까지’ 그가 정신여학교 음악 교사로 재직했다는 기록과<sup>75)</sup> 1940년에 경신학교의 음악 교사가 이흥렬(李興烈, 1909-1980)로 바뀐 것으로 보아 정신여학교에도 1930년 말까지는 근무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형준의 딸인 김원복(金元福, 1908-2002)도 1930년대에 정신여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근무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sup>76)</sup> 그녀는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출신으로, 재학시

71) 민경찬, 『송실과 한국의 근대음악』, 106.

72) “樂界의 三願人,” 『동아일보』 1932. 12. 10., 장정운, “피아니스트 김원복(金元福)의 1950년 이전까지의 음악활동: ‘음악가족’을 중심으로,” 『이화논집』 27/1 (2023), 165.

73) 새문안 교회의 [제43회 당회록]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김형준 선생 가족이 경성으로 이전한 시기를 알 수 있다. “주 강생 1913년 9월 1일(월요일) 황해도 신천(信川)교회(에서 온 김형준 내외와 딸 두 애까지 4인을 김익두 목사 증서를 인하여 받기로 하다.” (2023. 10. 27. 새문안교회 역사관 작성)

74) 음악교사 김형준은 1929년 교직원 일람에 촉탁교원(계약직)으로 있으며 창가를 가르친 것으로 기록된다. 주소는 송월동 24이며, 그는 1917년 11월에 경신학교에 취임하였다. 고춘섭, 『경신사, 1885-1991』, 395.

75) 김영삼, 『정신75년사』, 275.

76) “朝鮮人 中에서 金女史가 음악가 아버지(金亨俊氏)를 가졌었다는 것은 큰 행복이었다. 元來 天才가 있어 編髮少女때부터 그 아버지의 伴奏를 하던 그가 階段을 밟아서 좋은 先生의 指導를 받았으니 技術이 능란할 것은 물론이다. 그는 우리 악단의 자량이 될 만한 지위에 있다(..) 방금 貞信女學校에 在職中.” 洪鍾仁, “半島樂壇人漫評,” 22 『동광』, 1931. 6.

절부터 정신여학교 합창단에서 반주를 담당하였다.<sup>77)</sup> 이후 그녀는 피아노 전공으로 1926년부터 4년간 도쿄고등음악학원에서 수학하였고,<sup>78)</sup> 1930년부터 경성 중앙보육학교의 음악과와 정신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sup>79)</sup> 하지만 그녀의 이름이 정신여학교의 1937년에 기록한 현 교사와 구 교사의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식 교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80)</sup>

[표 3] 정신여학교의 개교부터 폐교 이전까지의 음악 교사

이름	재직시기	출신학교	담당과목
웬볼드 (Daniel M. Wambold)	1896-?	University of California	가창, 건반, 영어, 성경, 지리, 생리학
바레트 (Mary B. Barrett)	1901-1907	Park College	생리학, 지리, 미술, 음악
E. H. 밀러부인 (Mattie M. Henry Miller)	1905-1912	Moody Bible Institute	정신여학교 교가 작사, 작곡
레라 에비슨 (Lera C. Avison)	1912-1914	The College of Wooste	건반, 가창
릴리안 딘 (Lillian Dean)	1916-1920	Central State Normal School	건반, 미술
김형준	1920-1930년대	평양 숭실중학 출신 추정. 서양선교사에게 가창과 나팔을 배움	합창
김필레	1916-1918, 1923-1924	일본 동경여자학원, 영화(英和)음악전문학교, Agnes Scott College	역사, 수신, 건반, 합창

77) “基督女子主催 申興雨氏講演,” 『조선일보』, 1924. 12. 6.

78) “『피아니스트』 김원복양 도일 피아노를 연구하랴고,” 『조선일보』, 1926. 3. 13.

79) 1930년에 경성 중앙보육학교는 흥난파, 홍성유, 김원복을 교수로 음악과를 설립하였다. “中央保育學校 音樂科를 新設,” 『동아일보』, 1930. 2. 17.

80) 김원복은 이화여전 피아노과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1937년 7월 이전까지 정신여학교에서 가르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 『眞信百年史 上』, 527-529 교직원 명단 참조.

이름	재직시기	출신학교	담당과목
앤더슨 (Lillian Elizabeth Beede Anderson)	1920년대 추정	Occidental College, California University	영어, 성경, 음악
코헨 부인 (Mary Buchanan Coen)	1924년경	James Millikin University	건반
박경호	1926-1928년경	평양 숭실대학 중국 남경 금릉대학(南京大学)	건반
로즈 부인 (Edith B. Rhodes)	1930년대	Slippery Rock State Normal School	음악, 영어, 성경 (연희전문대 교원)

## 2) 합창교육

『정신75년사』에는 “코러스 대원을 연습시키고 코러스 단을 조직한 것이 1910년부터<sup>81)</sup>”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확히 합창단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연동 여학교 시절부터 학생들은 졸업식에서 합창을 하였음은 물론, 그 전날 밤에는 송년회를 열어 손에 등불을 켜고 학교 교정을 살피면서 기쁜 일이 있었던 곳에서는 기쁜 노래, 슬픈 일이 있었던 곳에서는 구슬픈 노래를 함께 부르는 행사를 하였고 정든 선생님과 친구들과 헤어질 때도 역시 노래로써 서로 화답했다고 하여, 그만큼 노래가 이들의 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82)</sup> 그러므로 공식적인 합창은 매년의 졸업식, 크리스마스 행사, 창립기념일과 같은 교내의 행사에서 정신 여학교를 대표하는 학예의 한 순서로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전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sup>83)</sup> 또한 이 시기에는 정신 여학교에서

81) 김영삼, 『정신75년사』, 218.

82) 김광현, 『眞信百年史 上』, 200-201.

83) 정애주 외, “수산 도리, 1912년 12월 7일 수신,”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478., Miss Margie S Baker, “A School Exhibition,” *The Korea Mission Field* (Seoul: Fed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1906), 161-162.

음악을 가르쳤던 선교사들 중에 성악을 전공한 선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가창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피아노를 전공한 김필레가 동경유학을 마치고 1916년에 바로 모교로 돌아와 일어와 영어, 그리고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그녀가 정신 여학교 학생들이 다수 출석했던 연동교회에서도 합창단을 맡아 지휘를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시기에 이전보다 발전된 합창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여겨진다.

인텔리 신여성인 김 선생님은 일어와 영어와 음악을 맡으셨는데(..) 처음으로 들어보는 사중창의 성가를 주일마다 연동교회에서 듣는 즐거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합창단은 음악 담당인 김필레 선생의 지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눈부신 발전을 한다고 모두들 칭찬하고 있었다.<sup>84)</sup>

또한 우리나라 음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김형준이 1920-30년대에 정신 여학교에서 음악 수업과 합창단을 지도한 것은 정신 여학교 합창단의 성장과 인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음악평론가 홍종인(洪鍾仁, 1903-1998)이 1931년 『동광』에 김형준에 관하여 쓴 글을 보면, 당시에 김형준은 성악가로서의 실력보다 정신여학교의 합창단의 지휘자로서, 그리고 김원복의 아버지로서 더 높게 평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sup>85)</sup> 김형준은 1917년부터 새문안교회의 찬양 대원으로 활동하였고, 1926년부터는 찬양대 인도(지휘)와 1933년 지도위원, 그리고 1938년 찬양대 대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1931년 새문안교회의 당회록에 의하면, 승동교회 찬양대를 인도했다는 기록도 있다.<sup>86)</sup> 김형준은 당시에 여러 음악회에 초청받는 성악가이자 교육자, 그리고 작곡가로 활동하였으며, 1932년에는 김인식, 이상준과 함께 조선 음악

84) “나의 交遊錄 元老女流가 엮는 回顧(9) 朴在城 婦女夜學校 교사로,” 『동아일보』, 1981. 1. 14.

85) 洪鍾仁, “半島 樂壇人 漫評,” 『東光』 22 (1931)., 장정운, “피아니스트 김원복(金元福)의 1950년 이전까지의 음악 활동: ‘음악가족’을 중심으로,” 170-172.

86) 새문안교회 역사관 자료 제공. (2023. 10. 27. 작성)

가 협회로부터 양악 초창기의 공로자로 표창을 받은 바 있다.<sup>87)</sup>

그 학교에서는 리화학(理化學) 기계를 완전히 설비하여노코 학생들에게 실험 교육을 시키며 특별히 음악을 장려한다합니다. 조선 성악계에 명성이 자자한 김형준(金亨俊)씨가 그 학교 음악선생이요, 따라서 학생들이 음악을 매우 잘한다 합니다.<sup>88)</sup>

합창연습에 관하여는 『정신백년사』에서 1920년대 활동했던 ‘정신 기독교 학생 청년회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일명 YWCA)’의 음악부에 관한 소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단체는 종교부, 지육부, 사교부, 체육부, 음악부로 구성되었으며, 활발한 기독교 사업을 통해 학교의 발전과 기독교 청년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sup>89)</sup> 이 중 음악부는 찬송가와 성가 보급의 목적을 두고 예배 중 특별음악 순서를 담당하였는데,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예배 전 연습)에 규칙적으로 합창연습을 하였다. 이처럼 합창단은 정신 기독교 학생 청년회의 비교과목 과외활동으로 운영되면서, 정기적인 연습과 실전을 통해 더욱 실력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음악부에 맡겨진 의무를 통해 대외적인 음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면서 학교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루이스가 쓴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학교의 합창 동아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87) “조선의 딸과 아들들에게 二十년 내지 三十년 동안을 한결가터 놀애와 풍금을 가르친 리상준(李尙俊), 김형준(金亨俊), 김인식(金仁澁) 三씨의 근속을 사회적으로 축하는 그 기념식은 작八일 오후 七시 三十分부터 인사동 승동(勝洞)례배당에서 현제명(玄濟明)씨 사회, 培材학대의 주악으로 열리었다.” “樂壇의 功勞三氏祝賀會,” 『동아일보』, 1932. 12. 9.

88) “학교순례(七) 신학기를 마즈며=시내각녀학교소개 리화학, 음악을 힘쓰는 명신녀학교,” 『조선일보』, 1925. 1. 31.

89) 기독교 계열의 지식인들인 김활란, 김필레, 유각경 등이 결성한 YWCA는 학교 전체의 자랑거리였다. 이들은 모든 교과 외 활동과 토요일 예배, 수요일 학급 기도회와 매주 금요일 정오에 신입생을 위한 열린 기도회를 포함하여 많은 예배를 담당하였다. 정애주 외, “마고리 루이스, 1937년 5월 『연례보고서』,”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740., 김광현, 『眞信百年史 上』, 469.

G는 합창단(Glee Club)을 상징하며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여학생 동아리로서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음악회를 열어 다른 이들을 돕고 있으며, 크리스마스 와 졸업식 때 매우 즐거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sup>90)</sup>  
1924년 4월- 1925년 5월.

현재는 주로 특별 행사를 준비하기 전에 일주일에 두 번 연습을 합니다. 합창단은 작년 가을에 몇 차례 연주를 하였는데, 11월 13일 승동교회에서 있었던 성서공회 기념 연주는 가장 재미있었습니다.<sup>91)</sup>  
1927년 5월 25일.

### 3) 정신험창단의 활동

정신험창단은 1922년에 있었던 지방 순회를 제외하고 주로 경성 내에서 활동하였으며, 이들은 정기적인 교내 행사, 그리고 기독교 관련 교외 행사, 음악경연대회, 라디오 방송에 참여하였다.

음악회는 교내·외의 필요한 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자주 활용되었다.<sup>92)</sup> 학교의 창립기념일에는 교사나 비품 마련, 불우이웃을 돕는 목적으로 1905년부터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모았다. 전시된 작품들로는 그동안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림, 붓글씨, 한자 쓰기, 수예품이었고, 이 작품들은 먹거리와 함께 판매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 음악회를 열어, 특별히 준비한 정신험학교의 합창과 학생들의 오르간 독주를 선보였다. 1924년 10월 31일과 11월 1일에 기록에는 당시 기도실과 식당을 겸하여 썼던 지하의 공간에서 여흥 음악회가 열렸고, 천 삼백 장의 표가 팔릴 정도로 음악회가

90) 정애주 외, “마고 리 루이스, 1924년 4월- 1925년 5월 『정신험학교 연례보고서』,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620.

91) 정애주 외, “마고 리 루이스, 『여학교의 연례보고서』, 1927년 5월 25일자,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638.

92) “그들은 올가을 개교기념일에 아마도 음악회를 열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축하도 하고 동시에 모금도 할 것 같습니다.” 정애주 외, “마고 리 루이스, 『연례보고서』, 1927년 5월 25일자,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632.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음악회는 만원이어서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표 파는 여학생께 물으니까 세시 반까지 그 자리에서만 팔린 표가 일천 삼백 장이 된다고 한다. (입장권 일매 오전)<sup>93)</sup>

(현대어로 고침)

행사는 학교의 노래로 시작되었다. 소녀들 중 하나가 오르간 반주를 하였다. 그 후 몇 절의 성경 구절을 한 목소리로 낭독했다(.) 이후에 몇 곡의 노래를 더 부른 후에 미스 왓볼드가 미용체조를 이끌었다. 그런 다음 한 소녀가 오르간 독주를 하고 한 방문객이 부모와 손님들에게 소녀들의 교육의 이점에 관해 몇 가지 언급을 한 후 마지막 노래를 함께 불렀다.

“A School Exhibition,” Miss Margie S. Baker.<sup>94)</sup>

1934년에는 정신여학교 주최로 제1회 교내 하기(夏期)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정신합창대를 필두로 재학생과 이화여전 재학생(정신여학교 졸업생)의 독창과 피아노 연주로 제1부가 꾸며졌고, 제2부는 쿤스 자매(Edwin W. Koons 선교사의 딸들)의 피아노, 첼로(세로) 독주와 부츠 부인(Florence E. Schumacher Boots, 1896-1976)의 바이올린, 클락(Allen D. Clark, 1908-1990)의 독창, 김호룡(金浩龍)의 기타, 홍성유(洪盛裕)의 바이올린, 김선(金善)의 독창, 그리고 정신합창단의 합창으로 마무리되었다.<sup>95)</sup> 또한 1935년에 열린 제2회 교내음악회는 11월 30일에 추기음악회로 연동교회에서 개최되어 대성황을 이뤘다.<sup>96)</sup>

이외에도 정신여학교 합창단은 고아원을 위한 행사나 학생들이 연례 모임

93) “眞信女校慈善市の 첫날, 一記者,” 『新女性』 2/11 (1924).

94) Miss Margie S Baker, “A School Exhibition,” *The Korea Mission Field*, (Seoul: Fed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1906), 161-162.

95) “眞信女學校主催의 教內音樂會는 今夜,” 『동아일보』, 1934. 6. 22.

96) “眞信女教內音樂會,” 『동아일보』, 1935. 11. 30., “大盛況의 眞信女學校 音樂會,” 1935. 12. 1.

등에 참여해 기독교 학교의 목적에 상응하는 선교 활동과 이웃을 돕는 사회봉사를 이어나갔다. 1934년 10월『연례보고서』에서 루이스 교장은 YWCA 학생들이 연례 모임 개막식 때 음악회를 개최하였고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전하며, 무려 천 명의 관중이 참여하여 129원의 기부금이 모여 이번 학기에 중국의 선교 사업을 위한 기금이 마련되었으며 겨울학기에 나올 학교잡지의 출간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고한다.

YWCA 학생들이 연례 모임 개막식 때 음악회를 개최하였는데 모든 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 학생들의 훌륭한 재능뿐 아니라, 많은 관객이 모여 재정적으로도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sup>97)</sup>

1934년 10월 6일, 마고 리 루이스.

합창단은 계속해서 유익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일에는 승동교회에서 로이드 핸더슨 호이 씨를 위한 기념 예배에서 연주하였고, 12월 8일에는 같은 교회에서 우리 학교 음악선생님이신 김형준 선생님과 음악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신 다른 두 분을 위해 축하 연주를 하였습니다.<sup>98)</sup>

1933년경, 5월 12일, 마고 리 루이스.

교외에서 열린 정신합창단의 가장 큰 연주는 1922년 7월에 약 15일간 진행되었던 지방 순회공연이었다. 정신합창단의 순회연주는 우리나라 여학교에서 처음 시행되었던 것이었다.<sup>99)</sup> 당시에는 이같이 여성들 여럿이 무대에

97) 정애주 외 21명,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 710.

98) 정애주 외 21명,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 편지』, 702.

99)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였던 이화학당의 전국순회연주는 1930년에 시작되었다. 공식적인 합창연주는 1908년 졸업식으로 기록되며, 1925년에 이화전문학교로 발족된 이후에는 '이화 글리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1930-1936년까지 여섯 차례 전국 순회 연주를 시행했다. "梨傳巡廻 合唱團出演," 『동아일보』, 1930. 12. 25., "梨傳合唱團 南鮮巡廻," 『조선일보』, 1932. 12. 19., "母校를 爲하여 梨傳音樂部出發," 『동아일보』, 1933. 7. 1., "梨?巡廻音樂團 鐵原서 公演," 『동아일보』, 1934. 7. 5., "梨傳音樂隊 平壤에서演奏," 『동아일보』, 1935. 11. 1., "梨花女專音樂團 地方에 巡廻演奏," 『조선일보』, 1936. 11. 3.

나와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지방의 주민들에게 여학생들의 연주 방문은 큰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순회연주는 20여 년 동안 교감으로 봉직했던 고(故) 신마리아 선생<sup>100)</sup>을 기념하는 도서관을 짓기 위한 모금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sup>101)</sup> 학생들의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김형준의 지휘 아래, 7월 10일 재령, 11일 진천, 12일 진남포, 14일 선천, 20일 광주, 21일 대구, 22일 마산, 24일 김해, 25일 부산을 순회하였다. 총 단원은 20여 명으로, 교사인 신동기가 단장을 맡아 합창단을 인솔하였다. 연주회는 장소에 따라 합창과 더불어 김영환의 피아노 독주와 김형준의 독창을 포함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sup>102)</sup> 정신합창단은 가는 곳마다 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았으며, 청중들은 청아하고 순수한 여학생들의 합창 소리에 감동을 받았다,

경성정신여학교 음악단원 남녀 20여명은 단장 신동기 군의 인솔하에 거(去)십이일 남포에 내도(來到)한 바 십삼일 하오(下午) 팔시에 故신마리아의 기념사업으로 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당지(當地)장로교회 비석리 예배당 내에서 음악연주회를 개(開)하였는데 우천(雨天)임으로 회잡인(會雜人)이 소수(少數)이었으나 단조(單調)하고 순결한 여자 등(等)의 음악과 독특한 김영환 군의 피아노 독주 등은 일반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동시 동정금이 일백여원에 달하였더라.<sup>103)</sup>

(현대어로 고침)

100) 신마리아는 기혼자로서 1893년에 정동여학교에 입학하여, 1896년부터 그녀가 소천하였던 1921년까지 가사와 침공, 성경, 산술을 가르치고, 교감으로 봉직하였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인격교육을 실천하고,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인재를 기르는 데에 헌신하였다. 김광현, 『眞信百年史 上』, 155-159.

101) “眞信女校 淫樂團- 南北各地를 巡廻하다.” 『기독교신보』, 1922. 6. 14.

102) 14일에 수안동야소교당에서 있었던 연주회에서는 김영환의 독주와 김형준의 독창 있었고, 광주 공연에서 김인숙이 ‘주(主)의 몽(夢)’을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신천 공연에서 김형준 선생은 ‘늙은 뉘부리’를 독창했다. “眞信女音樂團着光,” 『동아일보』, 1922. 7. 18., “眞信音樂團信川着,” 『동아일보』, 1922. 7. 18., “眞信音樂團東萊着,” 『동아일보』, 1922. 7. 31., “眞信女校生音樂會,” 『동아일보』, 1922. 7. 26.

103) “眞信女校樂團來南,” 『동아일보』, 1922. 7. 18.

지방 순회공연 이후에 참여했던 교외 행사들은 [표 3]과 같이 기독교 관련 행사의 초청연주나 학교들의 음악회 혹은 음악경연대회였다. 이러한 합창단 활동은 여학생들에게 선교와 봉사를 실천함과 동시에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적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전조선 중등학교 현상음악회로 이름 붙여진 음악콩쿠르는 1932년부터 연희전문학교에서 남녀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열렸고, 우리나라에 유일한 음악과가 있던 이화여전에서는 1934년부터 여자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개최하였다.<sup>104)</sup> 이 두 현상음악회는 음악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위해, 또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음악인들을 배출하는 ‘음악가의 등용문’의 역할을 하였다.<sup>105)</sup> 정신합창단은 1935년 11월에 제2회 여자 중등현상대회에서 고순애 외 11명으로 참가하여 〈성모 마리아〉를 연주하였지만, 이 해에는 입상하지 못하였다.<sup>106)</sup> 하지만 1936년 6월 연희전문학교 주최로 열린 제5회 전조선 남녀 중등학교 현상음악회에서 합창 부문은 2등을 차지하였고, 피아노(양금) 부문은 손정희가 2등을, 여자 성악 부문은 박용신이 우승을 하였다.<sup>107)</sup> 또한, 이듬해에도 합창 부분에서 2등을 수상

104) 연희전문학교 주최의 남녀 현상대회의 참가 종목은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합창, 관현단(밴드), 관현악단 오케스트라)였으며, 각 종목의 출연자가 3인이거나 2팀 이상의 경우 미리 예선을 치러 결선공연에 올라갔다. 이화전문학교 주최의 여자 중등현상대회는 피아노, 바이올린, 합창, 성악 부문으로 나누어 경합했으며 심사위원에 부츠 부인(Florence E. Boots), 데머턴(L. Josephine Dameron), 윤성덕, 메리 영(Mary E. Young), 우드(Grace H. Wood), 박경호, 정애식(혹은 김애식, Alice kim)등 이화여전 교원들이 참여하였다. “全朝鮮男女中等敎 懸賞音樂會開催,” 『동아일보』, 1932. 4. 8., “第一會 全朝鮮女子中等校懸賞音樂大會,” 『동아일보』, 1934. 5. 29.

105) “이 대회는 신인 발견에만 의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로 조선의 음악 문화의 향상 보급에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방 퇴폐성(頹廢性)에 젖은 비예술적인 속요(俗謠)만연에 대한 커다란 정화(淨化)의 손을 들고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 의의 깊은 모듬이다. 그리고 심판위원회는 특히 사계의 권위를 망라하여 이 대회를 일층 권위 높게 하고 있다. “大望의 “學生音樂” 榮冠獲得은 누구?,” 『동아일보』, 1935. 11. 21.

106) 11월 22일에 대회에는 개성 호수돈여자고보교, 경성 정신여학교, 이화여자고보교, 배화여자고보교, 영생여자고보교, 선천보성여자학교가 참가하였으며, 이날 합창은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가 우승을 하였다. “梨花女子專門主催의 全朝鮮女子中等懸賞音樂大會,” 『동아일보』, 1935. 11. 21.

107) “全朝鮮懸賞音樂,” 『동아일보』, 1936. 6. 14.

하였고, 성악 부문에서 김인호(혹은 김인수)가 우승을, 유진광(혹은 유진유)이 2등을 하여 정신여학교 학생들이 크게 선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08)</sup>

또한 1935년부터는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하였다. 정신여학교가 부른 레파 토리는 주로 외국 곡의 번안곡들이었으며, 반주는 김형준의 딸이자 김원복의 동생인 김신복(金信福)이 맡았다.<sup>109)</sup>

[표 4] 1922-1937년 정신여학교 합창단 연주기록<sup>110)</sup>

날짜	주최	연주회장	연주곡목
1922년 7월 10-25일	지방순회		재령, 진천, 진남포, 선천, 광주, 대구, 마산, 김해, 부산
1923년 10월 13일	종로청년회 추기음악회	종로기독교청년회관	
1924년 1월 5일	충북청주청남학교 강연회	종로기독교청년회관	
1924년 6월 7일	조선여자교육협회	종로기독교청년회관	
1924년 12월 4일	기독교여자주최 신희우씨 강연	종로기독교청년회관	어부가
1924년 12월 12일	여자 기독교청년 2주년 창립기념식	종로기독교청년회관	아용야용 (견모상조)
1925년 10월 24일	전조선 주일학교 대회	종로기독교청년회관	

108) 제5회 전조선남녀중등학교 현상음악회에서 합창 부문의 우승은 전주 신희고보였고, 제6회에는 경신학교가 차지했다. 『百花爛漫할 藝術의 聖戰 百五十餘樂士 今夜, 登龍門에 參戰,』 『동아일보』, 1937. 6. 19., “젊은 樂士들의 “音樂聖戰”에 滿堂이 無我境에 陶醉!,” 『동아일보』, 1937. 6. 20.

109) 이화여전 출신인 김원복, 김신복 자매는 일찍이 아버지 김형준이 지휘를 맡은 새문안(신문내) 찬양대에서 여성 반주자로 활동했다. 차녀인 김신복은 숙명여학교를 졸업하고, 1937년에 이화여전 피아노과를 졸업하였다. 새문안 역사관 자료. (2023. 10. 27. 작성), “피아노를 一生의 愛人으로 삼겠습니다. 梨專音樂科 金信福,” 『여성』 2/3 (1937), 50.

110) 필자는 ‘정신 여학교 음악단’, ‘정신합창대’, ‘정신합창단’, ‘정신찬양대’, ‘정신코러스’ 등으로 검색하여,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기록된 자료를 정리하였다.

날짜	주최	연주회장	연주곡목
1926년 11월 27일	기독교청년 면려회 조선연합회 후원	종로기독교청년회관	귀속하는 희망
1927년 11월 19일	경성 명여학교음악회	장곡천정 공회당	남자의 군
1929년 4월 27일	피어선 학생기청 춘기음악회	종로기독교청년회관	유랑의 민
1929년 9월 28일	묘동기독교청년면려회 추기음악대회	장곡천정 공회당	
1930년 11월 7일	피어선기독교청년회 삼주년 기념식	종로기독교청년회관	
1932년 12월 8일	조선음악가협회 음악계 공로자 축하기념식	승동예배당	
1934년 6월 22일	정신여학교 제1회 교내 음악회	정신여학교	
1935년 11월 22일	이화여자전문학교 주최 제2회 전조선여자 중등현상 음악대회	이대 대강당	성모 마리아
1935년 11월 31일	정신여학교 제2회 음악회	연동교회당	
1935년 12월 1일	<라디오>		주 이름 찬양함-첸들러 곡 성모 마리아-드보르작 곡 주의 동산으로-토크슨 곡 별과 노래-블랙 곡 김형준 지휘 /김원복 반주
1936년 6월 13일	연희전문학교 주최 제5회 전조선남녀 현상음악회	부민관	
1936년 7월 6일	<라디오>		클레멘틴-몬토세 곡 딸기-메라틴 우리언니-미국민요 우리애기-로서아민요 군악대 행진-롭벨 째즈밴드-로서아 민요 까막잡기-서반아 노래 나비아-서반아 노래 김형준 지휘 /김신복 반주

날짜	주최	연주회장	연주곡목
1937년 6월 19일	전조선현상음악회 연희전문학교 6회	부민관	버지니로-블랜드 곡
1938년 6월 12일	<라디오>		김형준 지휘/ 김신복 반주
1938년 7월 3일	<라디오>		김형준 지휘/ 김신복 반주

음악평론가 홍종인은 1934년에 열린 전조선여자중등학교현상음악대회를 보고 『조선일보』의 칼럼에 당시 우리나라 여자 중학계의 음악이 어느 정도 지도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논한 바 있다. 비록 정신여학교 합창단은 이 음악대회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당시의 여학교들의 전반적인 합창 실력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그는 먼저 독창이나 합창이 완전히 학교 교육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의 연주 실력은 음악선생의 지도 능력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sup>111)</sup> 그리고 당시의 음악 교육가들의 지도가 학생들에게 기술의 훈련과 가치 있는 음악의 내면적 힘을 기르게 하는데 부족하다고 평하였다. 그가 지적한 여학생들의 소리는 “헛김에 빠져나가는 허약한 성음으로 곡의 장단과 고저에만 메우기 쉬워, 내면에 숨어있는 음악다운 진정한 노래의 아름다움을 찾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당시 여학교 합창단들의 약한 발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발성 문제는 곡의 분위기를 충분히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음악의 감동을 느낄 수 없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홍종인은 1933년 11월 홍성유가 지휘한 중앙보육합창단의 연주를 보고 호평을 한 바 있었는데, 저음부의 빈약함을 보완하여 각 성부가 균형을 이뤘고, 쉬운 곡이더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노래의 정신을 표현한 점 때문이었다.<sup>112)</sup>

111) “女子中等音樂大會 所感(1) 홍종인,” 『조선일보』, 1934. 6. 8.

“女子中等音樂大會 所感(2) 홍종인,” 『조선일보』, 1934. 6. 9.

“女子中等音樂大會 所感(3) 홍종인,” 『조선일보』, 1934. 6. 10.

112) “學校音樂의 指導者와 그指揮에 對하여 (下),” 『조선일보』, 1933. 11. 17.

정신 여학교 합창단의 자세한 모습은 1927년 12월에 『별건곤』에 실린 우은생(又隱生)의 『경성명여학교연합음악회』에 대한 평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날 정신 여학교 여학생이 부른 독창곡, 김형준 선생의 〈저 구름 탓〉은 곡이 평범하고 학생의 노력과 실력이 부족했다고 평한 반면에, 합창은 소리가 골고루 갖춰져 있고 연습도 잘 되어서 대체로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곡이 합창단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보다 어려웠다는 듯 아쉬움을 남겼다.

합창(合唱) 『남자의 군(娘子의 群)』은 원(原) 교연(郊宴)의 가(歌)라 하는 유명한 곡인데 도리어 독창 보다 좋았다. 소리도 골고루 모인 모양이요 연습도 많은 모양이라 성적도 보통으로 잘 되었는데 곡보(曲譜)가 정도(程度)에 넘는 것이라, 무리(無理)의 노력이라고 보였다. 선생님의 고려를 바라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sup>113)</sup>

(현대어로 고침)

하지만 정신합창단이 1936년과 1937년에 참가한 전조선남녀현상음악회에서 2등을 했다는 사실은 그 실력이 1920년대 비해 많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증거가 된다. 더군다나 1936년의 대회는 예년에 비해 참가자들의 수준이 매우 높아져서 금년의 예선입선자가 작년의 결선입선자의 수준을 능가한다는 평가까지 나왔기 때문이다.<sup>114)</sup>

113) 경성명여학교연합음악회는 경성지국주최로 1927년 11월 19일에 장곡청정 공회당에서 열렸다. 우은생은 이날 합창 출연에 제일 익숙해 보이는 곳은 이화이고, 뜻밖에 성적이 좋은 곳은 숙명여고보라고 평하였다. 하지만 총평에서 자신이 편집자의 요구에 따라 전문가의 태도로 평한 것이 아닌 보통청중의 입장으로 평한 것임을 밝혔다. 又隱生, “京城明女學校聯合音樂會를 보고,” 『별건곤』 (10) 1927.

114) “제1회에 비하면 신청자와 출연자의 수효가 줄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작년의 경험에 비해서 진실로 쿵몰의 권위를 인식한 때문에 터무니없이 출전한 사람이 적고 따라서 금년에 출연한 사람들은 모두가 일가의 자신을 가진 뒤에야 비로소 출전할 용기를 얻게 된 때문이다. 이 증거로서는 금년의 수준이 작년에 비해서 그야말로 천 길의 높이로 뛰었다는 것을 가지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심사 여러분도 모두 금년의 수준이 작년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높아진 데 대해서 경탄해 마지 아니하여 금년의 예선입선자로서 작년의 결선입선자의 수준을 능가한 사람이 많다고 들까지 하였다.” (현대어로 고침) “성전(聖戰)

정신합창단은 1938년 7월 라디오 방송을 끝으로, 교외에서 활동한 공식적인 연주기록은 더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1938년 여름에 루이스 교장이 사임한 것에 이어 함영진씨가 교장이 되면서 학교는 인계작업에 들어갔고 1944년에 정신여학교가 풍문학원에 인수되면서 사실상 폐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방 후 1947년에 학교는 복교되었고, 김필레 교장에 의해 정신여학교의 합창 소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sup>115)</sup>

[사진 1] 정신여학교 합창단<sup>116)</sup>



뒤의 이 수확(收穫)!” 『조선일보』, 1936. 10. 23.

115) 교장으로 복직한 김필레는 예배 때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으며, 음악교육이 여성교육과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희천·김혜경, 『정신 130년사 하권』, 55.

116) 두 번째 사진에서 맨 왼쪽이 김형준이다. 이희천·김혜경, 『정신 130년사 상권』, 368.

#### 4. 나가며

정신여학교는 애니 엘러스가 세운 미국 북 장로교 소속의 첫 번째 여학교로서, 일제의 교육령에 의한 불이익과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폐교의 위기를 극복하며 명실공히 선교적, 교육적 목적을 성취해나갔다. 정신 여학교의 교육의 목표였던 굳은 절개와 신앙은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가장 큰 중심이 되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 선교와 봉사의 실천으로 표출되었다. 개교 초기의 음악 교과과정은 전문 음악인을 양성하려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기독교적 교육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었다. 여성 선교사들은 찬송가 교육을 통해 가창 수업을 시작하였고, 비교과목 수업으로 오르간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교회의 반주자나 찬양 대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음악 과목은 성경과 산술만큼의 비중을 크게 두거나 전문적으로 교육하지는 못하였다.

보다 발전된 음악교육은 1920년대 초반 피아노를 전공한 김필레, 성악가로 활동 중인 김형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김형준은 우리나라 양악 음악의 선구자로, 성악가와 작곡가로 활동하였으며, 정신여학교, 경신학교 등의 학교에서 음악을 지도하여 우리나라 초기 음악교육의 공로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1920-30년대 정신여학교 합창단의 지휘자로서 딸인 김원복, 김신복의 반주로 여러 무대에 섰다.

정신합창단은 1910년대에 결성된 것으로 기록되며 교내의 예배와 창립기념식, 졸업식 등과 같은 행사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였다. 그리고 1920년대에는 '정신 기독교 학생 청년회'의 음악부서로서 합창단이 비교과 과외활동으로 운영되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합창단은 교내 예배음악은 물론, 기독교나 학교 관련 단체에 초청되어 음악 행사를 담당하거나, 합창 실력을 겨루는 중등학교 현상음악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정신합창단의 가장 큰 역할은 학교를 대표하여 음악을 연주하고, 이를 통해 기독교적 선교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특히, 합창단은 교내외 필요

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모금 활동에 자주 참여하였는데, 대표적인 활동으로 1922년에 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실시된 지방 순회연주를 꼽을 수 있다. 이는 학교의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국내 여학교로서는 최초로 실시되었던 연주 여행이었다. 20여 명이 단원들은 하계방학 중 약 15일 동안 김형준 선생의 지도 아래 재령, 진천, 진남포, 선천, 광주, 대구, 마산, 김해, 부산 지역을 순방하였다. 학생들의 연주는 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으며 모금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에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여성합창의 새로운 소리를 들려주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정신여학교 합창단의 음악 활동은 그 빈도와 범위 면에서 상당히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합창단이 참여한 행사는 주로 교회와 학교 등 기독교와 관련된 단체에서 주관한 것이었고,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한 연주회는 2회, 전국 순회연주는 각각 단 1회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연합음악회나 현상대회의 출전도 지속적이지 않아 정신합창단의 실력 향상의 꾸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정신여학교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총독부의 지정학교제에 여러 번 통과하지 못하였고, 선교부의 후원도 어려워져 여러 번의 폐교의 위기를 겪어야만 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정신여학교가 여성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 성장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결국 합창단의 음악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도, 폐교 이전까지 꾸준한 활동을 이어갔던 정신합창단은 해방 이후 새롭게 소생하여 1967년부터 지금까지 '정신 노래 선교단'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해나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정신합창단의 시작과 활동들은 정신여학교 초기 음악교육의 결과로서, 그리고 학교가 지켜왔던 기독교적 정신을 음악적으로 적극 선용한 상징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1차 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독신보』

『신동아』

『매일신보』

『신가정』

『여성』

『별건곤』

『동광』

새문안교회 역사관 기록물 (당회록, 제직회록, 주보)

The Korea Field (Seoul: Fed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고춘섭. 『경신사, 1885-1991』 (경신사편찬위원회 편집), 서울: 경신중고등학교, 1991.

계일, 제임스 S. / 김인수 옮김. 『제임스 S. 계일 목사의 선교편지』. 서울: 쿤란 출판사, 2009.

김광현. 『眞信百年史 上』 (정신백년사출판위원회 편집). 서울: 정신여중고등학교, 1989.

\_\_\_\_\_. 『眞信百年史 下』 (정신백년사출판위원회 편집). 서울: 정신여중고등학교, 1989.

김사랑. “내한 여성선교사들의 음악활동과 청각적 근대화: 1885-1940년까지 미북장로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7.

김영삼. 『김마리아』.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 \_\_\_\_\_. 『정신75년사』. 서울: 정신여자중고등학교, 1962.
- 김향숙. “개화기 여학교의 교과 및 비교과 교양교육.” 『한국교양교육학회』 12 (2018), 165-185.
- 김혜경·이희천. 『애니 엘리스: 한국에 온 첫 여의료 선교사』. 서울: 흥성사, 2019.
- 노동은. “1910년대 기독교계 학교의 음악교육과 그 영향.”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 (2004), 65-117.
- \_\_\_\_\_. “1910년대 학교·교회의 음악상황.”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64 (2004), 3-15.
-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동교회. 『연동교회90년사:1894-1984』. 서울: 연동교회, 1984.
- 대한예수교장로교 연동교회 역사위원회. 『연동교회 애국지사 16인 열전』. 서울: 카이로스, 2009.
-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1884-1910』. 서울: 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_\_\_\_\_.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서울: 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 로즈, 해리 A. / 최재건 옮김.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 민경찬. “[자료] 안애리(安愛理)가 편찬한 『창가집』.” 『낭만음악사』 48 (2000), 223-340.
- \_\_\_\_\_. 『송실과 한국의 근대음악』. 서울: 송실대학교 출판부, 2017.
-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서울: 예술 출판사, 2002.
- 박혜진. “미북장로회선교부 관할 미션스쿨에 대한 한국인의 경영 참여.” 『이화논집』 39 (2013), 209-247.
- 박형우 편역. 『호러스 N. 알렌 자료집 II. 1884~1885: 한국 최초의 개신교 (의료) 선교사』. 서울: 선인, 2020.
- 안맹호. 『캔사스시티 지역 한인 이야기』. 캔사스시티한인회 & 안일재단, 2019.

- 언더우드, H. / 김인수 옮김. 『언더우드 목사의 선교편지』.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 이기서. 『교육의 길 신앙의 길, 김필레 그 사랑과 실천』. 서울: 태광 문화사, 1988.
- 이성전 / 서정민 · 가미야마 미나코. 『미국선교사와 한국 근대교육: 미션스쿨의 설립과 일제하의 갈등』. 서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2007.
- 이수정. 『한국근대 음악기사 자료집: 잡지편』. 서울 :민속원, 2008.
- 이영분. “근대 한국 미션스쿨의 여성교육과 한국 여성의 삶의 변화: 초기 이화학당과 정신 여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4.
- 이희천 · 김혜경. 『정신 130년사 상권』. 서울: 흥성사, 2017.
- 내한선교사사전 편찬위원회 편. 『내한선교사사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2.
- 윤경로. 『새문안교회 100년사』. 서울: 새문안교회역사편찬위원회, 1995.
- 장정운. “피아니스트 김원복(金元福)의 1950년 이전까지의 음악 활동: ‘음악가족’을 중심으로.” 『이화논집』 27/1 (2023), 161-201.
- 정신여자중고등학교 · 정신여자중고등학교 동문회. 『(사진으로 보는) 정절과 신앙의 정신 120년』. 서울: 정신여자중고등학교, 2007.
- 정신여중고사료연구위원회. 『정신 130년사 하권』. 흥성사, 2020.
- 정애주 외.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 편지』 (정신여학교사료연구위원회 편집). 서울: 흥성사. 2014.
- 최성이. 『정신노래선교단 50년사』.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 2019.
- “조선교육령.”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abId=01&levelId=hm\\_141\\_0010](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abId=01&levelId=hm_141_0010). 검색일: 2024. 4. 10.
- “새문안 여성사(1) 자료집.” <http://archive.saemoonan.org/user/board.html?state=1&lecId=0&boardId=138>. 검색일: 2024. 3. 11.

## Abstract

# A Study on the Music Education and Choral Activities of Chung Sin Girls'Academy (Woman's Academy in Seoul) in the Early Years (1887-1938)

Oh, Dong Eun

This paper is about the study on the music education and choral activities of Chung Sin Girls'Academy which were implemented from the beginning of the academy until 1938, when the last principal was in office. The Chung Sin Girls'Academy, the first girls' school of the North Presbyterian Church, was founded in 1887 by a medical missionary, Annie J. Ellers (1860-1938) under the name of The Chung Dong Girls'Academy. Studies such as the Bible, arithmetic, and languages were taught in the academy with the goal of its students to be trained as well-behaved women with sound faith, then a middle school system was adopted from 1903. Their music classes started with hymn sing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academy and were conducted by female missionaries as basic singing and organ education, but the music subjects did not play a large part except in cases where they were beneficial to church ministry. However, more advanced music education was provided as the first graduate, Kim Pil-rye, who majored in piano in Japan, and Kim Hyeong-jun who was a former vocalist from Soong Sil Academy(Boy's Academy in Peong Yang), taught music.

As choir stages were set up at events such as graduation ceremonies and founding anniversaries that were held on campus every year. The Chung Sin Choir was naturally formed and it became known as the choir representing The Chung Sin Girls'Academy by participating in the events

of Christian organizations that were popular between the 1920s and 1930s on and off campus. In 1922, as a missionary group practicing missionary work and sharing, they planned a nationwide tour for the first time as a domestic girls' academy to raise funds to build a library in the academy.

The Chung Sin Girls' Academy was a representative Christian girls' academy where modern Western music began, and the music education and choir activities conducted there are important examples that allow us to examine the beginnings and aspects of the women's choirs in the early modern era.

Key Words: Music education of Woman's Academy in Seoul, Chung Sin School Glee Club, Chung Sin Choir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15일	2024년 4월 17일~5월 30일	2024년 6월 1일

DOI 10.34303/mscol.2024.32.1.001